

오존상황실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구로구, 8월까지 오존 계절관리
노인들에 실외 활동 자제 안내

서울 구로구가 고농도 오존 발생이 집중되는 이달부터 8월까지 구민 건강 보호를 위해 '고농도 오존 계절관리 집중대책'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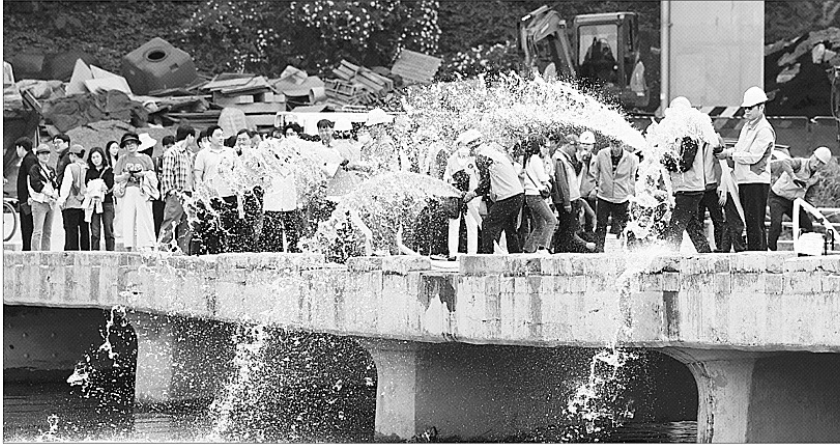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강한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여름철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농도가 높아지며, 고농도 오존은 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와 노인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구는 최근 기온 상승과 강한 햇빛 등의 영향으로 오존 농도와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오존 위해성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원인물질 배출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오존 예·경보제 운영 및 홍보 강화 ▲민감·취약군 대응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집중점검 ▲저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 권장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등 6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오존 상황실을 운영해 오존주의보·경보 등 발령 시 문자 발송과 함께 구청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백신 기자 zini@siminilbo.co.kr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
호스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12일 서울 강남구 탄천세교2로에서 열린 풍수해 대비 실무자 교육 및 방재훈련에서 참가자들이 대형 호스를 이용해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장흥군, 신청자 추가 모집

전남 장흥군이 석면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건축물 지붕재 또는 벽체에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됐다. 군은 13억80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352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은 최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출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3524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했다.

지원은 최대 7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출사 철거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까지 전액 지원한다.

정홍수 기자 whng04@siminilbo.co.kr

용인시, 종량제봉투 공급 제한 전면 해제

재고 1000만장 이상 확보

생산 확대·유통 구조 정비

경기 용인시는 종량제봉투 공급 안정을 위해 시행했던 판매소 공급 제한 조치를 최근 전면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종량제봉투 수요 급증으로 판매량이 평소 대비 약 13배 수준인 하루 최대 173만 장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수요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즉시 안정화 대책을 가동하고 생산 확대와 유통

체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작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약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보에 나섰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와 협력해 유통 구조를 정비하고, 판매소 주문 방식을 온라인과 ARS 중심으로 전환해 공급 효율성과 재고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관리했다.

현재 시는 1000만장 이상의 재고를 확보했다.

윤안·오영석 기자 ows@siminilbo.co.kr

경기도, 철도안전정보 시스템 무상 활용

사·운행 장애 정보등 접근 권한 확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

독자 구축비 219억 절감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독자 시스템 구축비 219억 원과 데이터베이스, 개폐기 등 추가 비용을 절감했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를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운영 중인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했다.

당초 관계기관은 보안성 우려를 제기했으나 도는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접근안을 제시했다.

도는 독자 시스템 구축비 219억 원과 데이터베이스, 개폐기 등 추가 비용을 절감했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오산시 세교3지구 체계적 광역교통 개선 본격화

시, 기본 구성 용역 착수보고회

전문기관·대학 연구기관과 협력

경기 오산시는 세교3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인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1일 '오산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개선 기본구성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의 추진 방향과

과업 내용, 향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세교3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교통 분야 전문 민간 용역사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참여해 실무 중심의 교통 분석 역량과 학술·연구 기반의 전문성을 결합함으로써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

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전문 민간기관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광역교통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홍 기자 mjh@siminilbo.co.kr

동대문구, 생활폐기물 감량 평가 '우수구'에 선정

(서울시)

'굿바이, 텐(10L)' 캠페인·파봉 점검등 성과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 행 부구청장 김기현)가 '자치구 감량'·재활용 실적 및 참여도 성과 평가'의 1차 중간평가에서 상위권인 우수구로 선정돼 시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입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지난 2~8월 실적을 바탕으로 감량 실적과 시

민 실천 노력 등 5개 분야를 종합 심사했으며, 동대문구는 2~3월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자체 슬로건인 '굿바이, 텐(10L)'을 활용한 대안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캠페인을 펼쳤다. 홍보물 25만장을 제작해 지역내 구립시설과 학교 등 1000여곳에 배포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청량리역 광장에서 진행된 파봉투를 직접 열어 재활용품 혼입 여부 확인하는 '파봉 캠페인'을 운영

부를 확인하는 '파봉 캠페인'을 진행해 올바른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렸다.

'굿바이, 텐(10L)' 캠페인은 종량제 봉투를 직접 개봉해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배출 요령을 깨닫는 환경 개선 활동이다. 재활용품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밀린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것을 막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극대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배출 실적을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크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다회용기 지원

이달 중순부터 5개 사업장 참여

경기 파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평화의 상징인 임진각 관광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매년 45만명 이상이 찾는 파주임진각관광 화끈돌과 일원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한다.

해당 사업은 파주임진각관광 화끈돌에 운영사무실 및 입장객 카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참여 카페는 커피 등 음료를 포장하는 관광객에게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관광객들은 다회용컵을 사용한

후 카페 또는 콘돌라 탐승장·하차장 인근에 설치된 지정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파주 임진각관광화끈돌 운영회의실에서 임진각관광화끈돌(주) 및 입장객 카페 4곳과 '1회용품 사용 안하

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참여 사업장은 1회용품 감축 노력과 함께 다회용기 사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운영사인 파주디젤(주)을 비롯해 ▲카페907 ▲현진도너츠 파주임진각점 ▲포로망스 베이커리 전방캐피탈 ▲프로비트 플레디스 등 총 5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오염 의심 '풍전지주' 이상무

서산시, 지속적인 현장 점검

충남 서산시는 지난 최근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 풍전지주의 수질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 분석은 4월 중순부터 풍전지주 폐사가 발생하면서 수질 오염 가능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생활하수처리소오수구양, 부유물질, 총유기탄소, 총질소, 총인 5개 항목에 대한 검사도 이뤄졌으며, 모두 정상 범위내 수치를 기록했다.

시는 풍고기의 폐사가 불발 산란기에 따른 스트레스와 급격한 수온 변화, 용존산소량 부족 등 계절적·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풍고기 폐사가 발생한 4월 중순부터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산=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祝 · 시민일보 창간 32주년
5월 청소년의 달

2026 강서 아이들 가치마치 페스티벌

2026. 5. 16.(토) 12:40 ~ 17:00

개회식 13:00 예원교회 원니스를
12:40 식전 마술공연, 강서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제24회 솜씨자랑대회
동요대회 14:00~16:30 예원교회 원니스를
글, 그림 14:00~17:00 예원교회 실내 및 서남당근린공원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마당
11:30~15:30 서남당근린공원

아동권리홍보·놀이체험부스
13:00~17:00 서남당근린공원

사건건수상신경

2026. 4. 6.(월)
~ 5. 13.(수)

※ 등요는 5.1.(금)까지 신청 (40명/팀) 선착순
https://www.gangseo.seoul.kr/kids/kids020301

강서구